

팬픽: 동성(성)애 서사의 여성 공간

류진희*

차례

1. 들어가며: ‘부(腐)’녀자들
2. 사이버(cyber)에서의, 그리고 소설(novel)로서의 팬픽
3. 여자들의 시장: 남성 동성(성)애
4. ‘똑바르지(straight)’ 않은, 팬픽의 서사적 효과

국문초록

팬픽(fanfic)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읽고 쓰는 스타 간의, 특히 남성 동성애를 다룬, 대개는 성애적 장면을 포함한 이야기이다. 이 글은 왜 여성들이 남성 동성(성)애를 즐기는지와 관련하여, 팬픽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그 효과를 묻고자 한다. 스타라는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남성 동성(성)애 소설로서 팬픽은 10여년간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을 바탕으로 비(非) 혹은 반(反) 제도적으로 여성 사이에서, 그리고 여성 스스로 증산, 향유되어 왔다. 이러한 팬픽의 생산, 소비 과정은 기존 남성 동성사회적 경제 구도 속에서 주체로 위치되지 못한 여성이 남성을 매개로 자신들의 비공식적 시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징후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공(功)/수(收) 구도의 강도 높은 성애 장면을 포함하는 팬픽은 보다 종종 로맨스적 서사로 메워지는데 이때 여성은 동성애금지적 성규범에서 이탈하여 때로는 자신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심문하기까지 한다. 결국 2000년,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가 팬픽을 인터넷 유희매체물로 지목했을 당시 10대 ‘소녀’들이 내걸은 ‘팬픽을 문학 장르로 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정하락'는 구호는 텍스트와 주체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 참조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핵심어 : 팬픽, 팬덤, 소설, 서사, 사이버, 동성(성)애, 퀴어, 섹슈얼리티, 젠더 트러블

1. 들어가며: '부(腐)'녀자들

2000년 8월, 인터넷정보등급제 실행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표되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사이트에 난데없는 '소녀'들이 몰려든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을 항의글로 도배하다시피하고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이들 10대 여학생이 지키고자 한 것은 팬픽(fanfic)이었다. 일견 표현의 자유나 검열 반대와 상관없는 듯한 팬픽은 그러나 대부분 아이돌 그룹을 위시한 연예인 사이, 그중 동성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성관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항이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의 근거가 되었다.¹⁾ 이러한 법적 제재는 팬픽이 차단되어 읽을 수 없다 뿐 아니라 팬픽을 쓰는 것 자체가

1) 당시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항 전문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었다. 사이버 상의 표현 문제와 청소년 동성애 전반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했다. 한채운 외,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4. 더불어 오랜 논란과 투쟁 끝에 동성애 조항은 2004년이 되어서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제거되었다. 이를 고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다항은 다음과 같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10대 여학생, 그 ‘소녀’들 자신이 동성애를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수위 높은 성애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문제였다.²⁾ ‘소녀’들은 당돌하게도 ‘팬픽도 문학이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외치며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 및 동성애 왜곡 논란에 대항했다.

그로부터 8년 후, 2008년 현재 팬픽을 위시한 이러한 여성들의 동성애표현물 선호 실천은 보다 복잡하게 뻗어가고 있다. 일본발 B·L표현물 및 야오이패러디텍스트에 대한 취향이 팬픽과 함께 시야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팬픽 그 자체도 이제 ‘탈출구가 없는 10대 중고등학생’부터 ‘90년대 대중문화키드의 귀환’으로 가세한 2·30대까지 아우를 정도의 광범위한 향유층을 가지게 되었다.³⁾ 10대 여성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2000년 이후 팬픽이 가시화되자 이에 관한 논의 역시 여러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동성애를 비롯해 보통 무성적으로 인식되었던 청소년, 특히 성에 무지할 것이라 가정되었던 ‘소녀’들의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는 시각이다. 또한 팬픽을 패러디 작품 전반을 지칭하는 팬픽션(fanfction)의 하위 항목으로 재정위하여 한국적 아이돌 팬

2) 용어의 혼란이 다소 있으나, 이 글은 전반적인 패러디적 실천은 팬픽션으로,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연예인을 모델로 동성(성)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팬픽으로 규정한다. 이는 김민정이 『사이버 여성 문화로서 팬픽 연구; 환타지와 성정체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3, 4~6쪽)에서 구분한 정의에 기댄 것으로, 후자를 전자의 한계로 보지 않고 보다 독자적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3) 야오이는 절정 없고(ヤマなし; 야마나시), 완결 없고(落ちなし; 오치나시), 의미없다(意味なし; 이미나시)의 첫음절을 따서 여성 스스로 자조하는 듯 만들어진 말로 보통 남성 동성(성)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야오이패러디텍스트는 보통 남학생이 즐기는 모험이 중심인 소년만화를 남자캐릭터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바꾸어 만들어놓은 것을 말한다. 보통 야오이 혹은 야오녀와 중첩되어 쓰이는 동인계 또는 동인녀라는 용어는 이러한 아마추어 작가들의 커뮤니티적 창작 실천을 중심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B·L은 Boys Love의 약자로 남성 동성(성)애를 그리고 있는 야오이 중에서 나이 어린 미소녀가 주축인 이야기를 지칭한다.

덤(fandom)과 결합한 문화적 실천의 하나로 보는 시각 역시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접근에서 팬픽은 동성애적 성향을 ‘발견’하는 특정 계기로 위치되었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팬픽션이 극복해야 할 ‘과도기’적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논의 속에서 팬픽은 왜 동성애를 다루는가, 혹은 여성은 무엇 때문에 그중 특히 남성 동성(성)애적 표현을 즐기는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⁴⁾ 최근 일련의 논의는 10대뿐 아니라 2·30대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팬픽을 사이버 상에 새로이 발흥한 여성 문화의 하나로 위치 짓고 있다.⁵⁾ 이 글은 여성 스스로의 그러한 문화적 능력을 세력화하는 데, 혹은 팬픽이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동성에 서사에 힘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최근 한 매체는 이러한 동성애물을 즐기는, 그야말로 ‘머릿속이 썩은’ 여성이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출연하고 있다고 보도한다.⁶⁾ 청순을 여성의 최고 가치로 치켜세워왔던 동아시아 가부장제 사회에 일본의 ‘후조시(腐女子)’뿐 아니라 중국의 ‘푸늬족(腐女族)’, 그리고 한국의 ‘부(腐)녀자’가 동시기에 출몰하게 되었음은 무슨 징후일까. 이 글은 남

4)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수진,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여자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대 사회학 석사논문, 2004; 신영희, 『10대 여성 이반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대구지역 청소년 문화와 섹슈얼리티 구성에 관하여』, 계명대 여성학 석사논문, 2005. 후자의 입장은 팬픽을 소위 ‘하필 동성애?’라는 비평적 관점에서 읽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최은정, 『팬픽, 그들만의 환타지』, 『Cyber is...: 네트에서 문화읽기』, 사이버문화연구소, 역사넷, 2001; 김동식, 『조용필의 오빠부대부터 g.o.d의 팬픽까지』, 『雜多, 비평가 땡땡씨, 문화의 숲을 거닐다』, 이마고, 2003; 김현식, 『팬픽을 만드는 심리』, 『대중문화 심리 읽기』, 울력, 2007.

5) 김훈순·김민정, 『팬픽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본 소녀들의 성 환타지와 정치적 함의』, 『한국언론학보』 제48권3호, 2004. 6; 김민정,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적체성』, 『여성이론』 17, 2003. 1; 한유림 『2·30대 여성의 아이돌 팬픽 문화를 통해 본 젠더 트러블』, 서울대 여성학 석사논문, 2008.

6) 『중청소년 ‘야오이’에 열광하는 까닭은?』, 『해럴드 경제』, 2008. 4. 22.

성 동성(성)애를 다루는 팬픽이 오히려 여성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2000년 당시 ‘소녀’들의 ‘문학’ 주장이 텍스트와 주체 간 침투되는 서사적 효과를 증빙한다는, 즉 팬픽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변용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팬픽이라는 서사적 공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팬픽의 양식적 특질과 매체적 위치를 일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팬픽이 왜 팬픽션 및 야오이 1,2차 텍스트들과 유사한 궤도 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지, 그 차별적 지점 및 이유 역시 짚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사이버(cyber)에서의, 그리고 소설(novel)로서의 팬픽

‘팬픽도 문학이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구호는 팬픽이 허구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단은 물러서는 제스처로 보인다. 하지만 또 한편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면 동성에 역시 다를 수 있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이때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양식적 자리는 분명 소설이다. 현재 팬픽은 이미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 어색하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팬픽은 분명 팬덤, 특히 스타와 더욱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팬덤 역시 ‘사랑’의 일종이라고 할 때 팬픽은 스타를 가까이 느끼고 싶은 ‘팬심(fan心)’의 표출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팬픽을 그저 팬덤의 일부 부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를 읽고 쓰는 주체의 이야기 자체에 대한 열정이 간과될 수 있다. 팬픽은 팬 사이트의 한 부분에서뿐 아니라 팬픽 전문, 대개 그들 스스로 만든 홈페이지에서 발흥한다. 때로 그 공간은 애초의 팬 사이트보다 활성화되기도, 어떤 경우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팬픽을 보다 오래 즐긴 주체들은 몰두했던 최초의 스타에서 벗

어나 더 나은 이야기가 가능한 다른 인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까지 한다. 또한 팬픽을 즐기는 이들이 모두 ‘현장 뛰는’ 팬 층과 동일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팬덤은 팬픽을 그 양태의 하나로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팬픽이 최근 한국 여성 팬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팬픽은 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하기에 일반 창작야오이표현물보다 쉽게 몰입된다. 그리고 보통 기존 팬덤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소 폐쇄적인 동인계보다 접근도가 높다. 또한 일정한 줄거리 및 분위기를 이미 알고 즐겨야하는 야오이패러디텍스트 보다는 저매락이다. 팬픽에만 존재하는 소위 ‘리얼(real)물’은 그러한 동성애를 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야오이표현물들과는 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현실 속 스타의 사실 관계들을 세심히 따진 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로 짜놓은 리얼물은 오히려 팬‘픽션’이라할 만하고 팬픽은 주로 이 리얼물이 계기가 되어 읽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리얼물 속 팩트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에 팬픽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압도하는 픽션,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다. 잘 만들어진 리얼물은 스타에 대한 선호를 바꿔놓기도 하고 스타들이 팬픽 속 그들의 모습, 때로는 동성애적으로 재현하는 듯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야오이표현물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팬픽이 유명인이라는 정해진 인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해진 서사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팬픽션과 변별된다. 보통 팬픽션은 원본 텍스트, 즉 특정 완결된 서사에 기반을 두고 인물, 줄거리, 배경 등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원작에서 제외된 상황을 재구성하는 속편쓰기적 특징을 가진다.⁷⁾ 그리하여 리얼물에서 시작한 팬픽은 팬픽션

7) 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팬픽을 원본을 가진 ‘팬소설’과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에 비해 더욱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다른 유형의 이야기로 증산된다. 팬픽은 공포, 추리, 사극, SF, 무협, 환타지 등등 지금 소설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식에 무리 없이 대응한다. 그러나 또 빈번히 이러한 장르를 넘나들며 급기야 학원물, 조폭물 등 노골적인 설정을 내걸기도 한다. 이러한 문학의 난용은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물로 어떤 이야기든지, 특히 동성(성)에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팬픽의 광범위한 파급은 독자 역시 언제나 작가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닥치는 대로 팬픽을 읽던 독자는 곧 좋아하는 작가의 뒤를 자신도 모르게 캐다가 작가계의 빈약함을 한탄하며 어느새 직접 쓰게 된다.” 팬픽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의 한 양태이기에 만화를 비롯한 다른 형식에 비해 특정 자본 및 기술을 엄밀히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야기의 영역이 언제나 여성에 보다 친연성을 가졌던 상황과 동떨어 있다. 근대 이전 서사는 대개 문학과 거리를 두고 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때론 더욱 대중적이었고 언제나 여성적이라 일컬어지지 않았던가. 근대소설 역시 여성적이지 않을 만큼 지적이라는 것을 역사의 어느 단계마다 부단히 증명했음을 기억하자. 팬픽은 현재 ‘이야기-여성/대중-저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미숙한 작가와 분별없는 독자’를 표징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왕성하고도 성급한 욕망, 그리고 독자와 작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는 탄력성을 아마추어리즘이라 지칭해보자. 이는 금전이라는 대가 없이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물질적 의미에서 또한 그러하다.

팬픽이 기본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읽힌다는 것은 분명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덕분이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흥성한 환타지 소

논의는 다음에 근거한다. 김진량, 『팬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적 환상』, 『디지털 텍스트와 문화읽기』, 한양대 출판부, 2005.

설을 비롯한 장르문학 및 귀여니류의 인터넷 소설이 기존 문학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게임, 드라마, 영화와 접합해가면서 점차 주류에 떠오르기도 하는 것과 비교해 팬픽은 여전히 그 어떤 제도적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팬픽이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야오이물은 이미 세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야오이패러디물 역시 일본의 코미케(comic market)를 원형으로 하는 비전문적이나 금전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의 경우 실존 인물의 차용 때문에 언제나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공식적 시장을 형성해나가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야말로 스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성애 이야기라는 점 덕분에 팬픽은 양적으로는 융성하되 가십적 주목 및 윤리적 비난 이외 어떠한 제도적 지원에도 닿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팬픽은 역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도덕 및 이성애 중심적으로 설정된 금기를 위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인다. 이 공간은 일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사히 한 겹장막만 통과하면 기존의 성애적 표현과 거리를 두었던 여성에게 ‘멋진 신세계’가 된다. 그러나 팬픽을 향유하는 공간에 합당한 태도를 배양시키지 못하거나 그 집단과의 유대를 지속시킬 수 있을만한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경계 밖으로 축출되기도 한다. 몇몇 팬픽 사이트가 까다로운 입회조건을 내걸거나 빈번한 회원정리를 실시하는 것이 그러한 연유이다. 이는 팬픽을 쓰는 주체에게 보다 강하게 구속되는 바 소위 작가라 불리는 이들은 시리즈의 형식으로 대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책임감 있게 팬픽을 연재해야한다.⁸⁾ 별다른 이유

8) 팬픽 사이트는 주로 ‘작품’과 ‘감상’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을 게재하는 게시판은 크게는 현재 연재되고 있는 시리즈물을 올리는 곳과 보통 상~하, 혹은 1~3에서 끝나는 단편 및 중편을 게재하는 곳으로 나뉜다. 시리즈물은 대개 한편 당 원고

없이 연재를 중단하거나 누가 봐도 자명한 표절 시비에 걸렸을 때는 그 공간에서의 제명까지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인된 팬픽작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체로 몇 편 이상의 장편을 연재해야 하고 최소한 두 편 정도의 주목받은 작품을 가져야한다. 팬픽작가의 명성은 오로지 읽는 주체들의 감상에 근거할 뿐이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받은 작가로서의 인정은 결코 얕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⁹⁾ 특히 지속적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는 개인 팬픽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작가들은 종종 일정정도 수요가 있으면 1인 수공업의 형식으로 출판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스터 인쇄의 불법성 및 안전장치 없는 거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청소년 성정체성 및 동성애적 표현에 관한 비판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제도언론의 수면 위에서 팬픽을 다루었던 주요 방식 중 하나이다.¹⁰⁾

이 지점에서 거의 10여년 동안 그 어떤 이야기보다 활발하게 생산, 공유되었던 팬픽이 제도시장으로 결코 진입하지 못했던 핵심 이유였던, 즉 스타를 매개로 한 그 동성(성)에 서사의 의미를 여성으로 점유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팬은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달리 자신의 위치를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설정해나가는 주체이다. 그

지 25~30장 정도의 분량으로 20~25편까지 지속된다. 완결된 팬픽은 거의 장편소설 버금의 분량으로 한 게시물 혹은 한 파일로 완결 카테고리에 묶이게 된다. 또한 사이트 마다 소설 게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대체로 '통신어체, 지음소리, 과도한 이모티콘' 등의 금지와 모방사실이 확인된 '표절'에 대한 삭제 등은 강고하게 견지된다. 이는 기존의 팬픽이 비속어, 비표준어 등 상당한 '국어' 파괴에 일조한다는 의견에 반한다.

- 9) '감상' 게시판은 팬픽 사이트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다. 보통 연재되는 글 아래 다는 짧은 댓글과 달리 여기에는 작품의 어떤 측면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다음에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혹은 늦은 연재를 독촉하는 말까지 담긴다.
- 10) 최근의 한 방송뉴스는 '문화 사각지대에 위치한' 팬픽이 인터넷을 넘어 불법마스터 인쇄로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폐해'를 보도하고 있다. 2008년 4월 8일 YTNstar뉴스 「(AD수첩)아이돌 스타A군 인터넷에선 동성애자?!」 참조.

렇다면 팬픽의 작가와 독자가 그러한 지평에서 무엇 때문에 동(성)성애라는 설정을 견지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3. 여자들의 시장: 남성 동성(성)애

팬픽은 전술했듯 무엇보다 작가와 독자 모두 여성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순정만화만큼이나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나 팬픽의 젠더화는 이러한 향유 주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그들이 주로 다루는 소재가 남성 동성애라는 데에서 이중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과 주체의 확연한 구분, 특히 여성 스스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소거하고 남성으로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극단적 실천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자신의 실제 상황과 분명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용이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 남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은 기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보다 보편적인 전략에 속한다. 이야기의 중심에 여성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어떤 서사적 흐름에서도 상황 및 사건 자체는 묘하게 여성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이해되기 십상이다. 읽고 쓰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 팬픽이라는 양식이 오히려 남성만을 가지고 서사를 구축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야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가능하다. 이를 여성들의 ‘인형조종술’이라 할 수 있을까. 이는 초월적 입장에 선 작가가 작품 전반에 전면 개입하여 여성이라는 자연화된 동일시적 대상을 제거해두는 것을 말한다. 팬픽의 다수가 소위 ‘전지적 시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점에서 상통한다.¹¹⁾

따라서 팬픽 텍스트 속은 남성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일견 퇴행

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보통 이야기 속에서라도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기고 싶지 않은 여성의 ‘타고난 질투심’ 덕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혹은 그렇다 해도 그 남자를 사이에 둔 여자들 관계의 의미심장이 여기서는 더욱 주목되어야하지 않을까. 여성주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팬픽이라는 남성 주인공 태반의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여성 자신의 행위성이 보여져야한다. 원래 여성은 대개 상품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개의 사회가 근친상간금지라는 규범에 기대고 있고 그러한 구조는 오직 여성의 교환으로 가능해진다는 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평 속에서 남성 동성사회를 지탱하는 최종심급인 여성 스스로는 의미 있는 사회적 거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팬픽은 이러한 점에서 여성으로써 가능해지는 시장이 아닌 여성들 스스로의 시장이 도래하는 양상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고 읽을 수 있다.¹²⁾ 다시 말해 팬픽의 여성 부재는 여성이 철저히 배제된 남성 동성사회를 남성 동성애, 그것도 성애적 모습으로 패러디한 결과이다.¹³⁾ 이러한 구도 속에서 팬픽을 즐

11) 안선주의 조사는 팬픽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27건(35.1%)인데 반해 전지적 시점이 49건(63.6%)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내용은 「인기남성댄스 그룹의 팬픽 현상에 대한 연구; ‘g.o.d’와 ‘신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3 참조.

12) 이리가라이는 ‘비록 여자들과 남자들이 수적으로 같다 해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욕망을 품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욕망을 품을 수 있는 여자들은 극히 소수이다’는 전제 아래 여성의 교환으로 가능해진 친족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 ‘정직한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를 조롱하며 ‘(만일) 여자들이 상품이라는 그들의 조건, 오로지 남성에 의한 생산 활동과 소비, 가치화, 유통에 굴복하는 데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교환 작업과 기능에 참여한다면 이 사회 질서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 논의는 「여자들의 시장」,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역, 동문선, 2000 참조.

13) 박세정은 아오페러디텍스트의 주 생산자 집단인 여성을 기존 성적 권력 및 쾌락을 재배열하는 문화능력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는 남성 동성성에

기는 여성은 실제 남성 동성애는 철저히 금지한 그 팔루스적 상징법칙에 불응하는 이상한 주체가 되어간다. 족외혼에 입각한 남성 사회를 짊어질 의무에서 한발 비껴나 있는 여성이 남성들 간 쾌락에 오히려 몰입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일반 남성은 남성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순 있어도 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사를 진정 향유하게 되기는 어렵다. 혹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팬픽을 읽고 쓰는 여자들은 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매개로 여성으로서 스스로 그 유희적 교환의 주체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팬픽은 남성 간 쾌락의 가시화로 오히려 여성들만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그 공감의 시장을 드러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팬픽은 기본적으로 연애 이야기이다. 사랑은 전술한 팬픽의 온갖 장르의 상위에 존재하는 제1법칙이다. 팬픽의 서사는 그 지고의 가치를 체현하는데 바쳐지고 이때 동성애는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수난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억압적 이성애 연애각본에 끌려들어가지 않을 객관적 거리의 확보, 그리고 남성을 매개로 한 여성 사이의 연맹 구축 때문이라는 팬픽의 남성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다시 이 사랑은 왜 굳이 육체적이어야 하는지 질문하게 한다. 팬픽의 성애적 측면은 기존 여성 독자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던 로맨스 서사가 대체로 ‘안타까운 지켜주기’ 등의 아름다운 묘사로 지탱되어왔던 것과 사뭇 다르다. 성관계를 자세히 진술하는 장면을 ‘썸’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는 점은 이러한 팬픽의 특질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팬픽에서 종종 보이는 강도 높은 성애장면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팬픽의 핵심인 공(功)/수(收) 구도에 대한 이해를

(Homo-eroticism)에 대한 선호가 남성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에 대한 패러디일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성적 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능력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6 참조.

촉발시킨다. 공수는 성관계에서의 역할에서 비롯한 명명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자는 삽입하는 쪽이고 후자는 흡입하는 쪽이다. 명백히 이성애적 남녀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이 구도는 종종 공수의 자질을 확정짓는 코드가 되는데 이때 공은 남성적이고 수는 여성적으로 그려진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 명확한 듯 보이는 공수의 구별은 종종 서사 과정에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변이되고 급기야 무화 혹은 역전되기도 한다. 공과 수 앞에 붙는 각종 수식어가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¹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의 구별은 팬픽을 쓰고 읽는 주체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층위이다.¹⁵⁾ 이는 팬픽을 읽을 때 제목 앞에 ‘○(공)×○(수)’ 혹은 ‘○공○수’로 표시된 공수를 드러내는 커플링의 이름을 먼저 본다는 것, 그리고 팬픽을 쓸 때 캐릭터의 형성을 공수의 할당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적 공수 구별은 오히려 주인공 양쪽이 모두 남자라는 전제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공수를 명확히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팬픽의 독자와 작가 모두에게 그들은 이성애적 구도 속 일반 남성과는 분명 다른 존재라고 느껴진다. 이는 공이 아무리 강해도 남자를 좋아하는 한 ‘진정한 남자’가 아니

14) 공수의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용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공; 절대강공, 완(벽)공, 잔혹공, 냉정공, 집착공, 강공, 능글골, 야비공, 약(한)공, 꽃공, 아방공, 마보공, 귀염공, 다정공, 비굴공, 은근공 * 수; 꽃수, 완(벽)수, 비굴수, 천상수, 능동수, 강수, 앙탈수, 약수, 여왕수 등등. 공과 수, 각각의 핵심자질은 그 자체로는 ‘강’, ‘약’, ‘꽃’ 등에서 보이듯 공유될 때도 많으며, 전전(후) 혹은 리버스(reverse;전환)라는 용어에서 보이듯 그 구분 자체를 넘나드는 캐릭터도 존재 가능하다.

15) 류정월은 공수가 팬픽의 가장 핵심이라 통찰하고 이것이 ‘주체-남성/대상-여성’으로 나뉘어 서사의 각 층위에서 작용된다고 보았다. 그는 무엇이 남성 혹은 여성적인지, 그 성격 형상화는 보다 다양할 수 있지만 성역할에 있어 전자가 확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는 데 비해 후자는 은밀하고 비밀스런 유혹을 시도하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관련논의는 류정월, 『팬픽의 기호학적 분석: 소녀들의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8. 6 참조.

며 아무리 예쁘다한들 수는 ‘남자답지 않은 남자’라는 인식의 배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팬픽의 공수 설정에 대한 선호 문제는 그들 각자의 성별적 전형성이 아닌 남-남 조합의 역동적 창출에 초점을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보통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조합을 놓고 종종 이루어지는 격렬한 토론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커플링은 여성다운 자질, 혹은 남성다운 태도에서 비롯한다기 보다 성관계에서의 역할, 즉 말 그대로 삽입 및 흡입의 공수라는 역할과 보다 밀접히 연동된다. 한마디로 팬픽의 즐거움은 기본적으로 이 남-남 커플의 사랑을 육체적으로 관음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성행위를 염두에 둔 공수를 둘러싼 끝간데 없는 논의는 팬픽을 읽고 쓰는 여성이 과연 전술한 팔루스적 상징 권위에 물리적 페니스 자체를 유희하며 대항한다고 볼만하다. 팬픽에서 번연히 드러나는 삽입되지 못한 수의 페니스를 희롱하는 장면은 여성의 성을 침범할 수 있었던 남성의 권위적 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¹⁶⁾ 페니스의 노출만으로 여성을 공포에 떨 수 있게 했던 현실적 맥락은 적어도 팬픽에서 우스꽝스레 상대화된다. 그러나 빈번히 등장하는 강간을 비롯한 남성 간의 노골적 성행위 묘사, 그리고 그에 대한 여성의 관음증적 탐닉은 팬픽을 ‘여성들의 포르노’라고까지 지칭되게 했다. 이러한 명명은 기존 남성 포르노의 성 억압적 문제와 연결되어 팬픽의 정치적 올바름을 지적하는 데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에로티카(erotica)적 환상이 동성애, 그것도 주로 남성 간 성애적 장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설은

16) 강유림은 더불어 삽입하지 않은 나머지 페니스에서 느끼는 감각을 서술하는 장면이 또한 이 공/수의 구도가 유사 이성애적 관계로 결코 포섭될 수 없는 잉여적 쾌락을 드러내준다고 읽는다. 관련 논의는 위의 글, 103쪽 참조. 이러한 팬픽을 읽고 쓰는 여성 주체가 스스로에게는 없는 성감대의 다른 쾌락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다시 공/수의 삽/흡입 관계가 남/녀로 등치될 수 없는 지점 및 공수 관계를 즐기는 여성 위치의 모호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여성으로서 임신 등의 문제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라는 자연화된 응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기존 남성 중심적 포르노의 일회적이고 절편화된 욕망의 분출이 팬픽의 서사와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봄으로써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포르노에서 행위로서 무한 반복되는 강제 성행위는 팬픽에서 새로운 쾌감에 눈뜨는 계기로 그려진다. 팬픽 ‘썸’의 강간 설정 또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욕망을 유발시키는, 다시 말해 몰라야할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두고 주인공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심문하는 장치가 된다. 포르노 영상은 삽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팬픽 서사는 사회 내의 인정, 혹은 최소한 스스로에 대한 긍정이 목적이다. 이러한 긍·부정의 경계에서 팬픽 서사의 엔딩은 해피(happy) 혹은 새드(sad)로 나뉜다. 이성애적 성도덕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팬픽의 성애적 장면은 서사적 차원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 및 감정을 그려내기를 요구한다. 성정체성과 신체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다 종종 성적 지향이 이성애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세계와 자아 사이에는 심각한 낙차가 발생한다. 팬픽의 서사는 이러한 간극을 설득력 있게, 때로는 보다 로맨틱하게 메워내게 한다. 그러니 소설로서의 팬픽은 이 점에서 기존 남성중심적 이성애포르노재현물과는 다른 궤도를 그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보다 핵심적으로 “포르노는 에로틱한 표현물을 소비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에 그 개인이 어떻게 자의 타의로 공모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더욱 가깝다.”¹⁷⁾ 그렇다면 포르노로 팬픽을 문제시하기 위해서는 남성 동성(성)애 서사를 즐기는 여성이 실제 그 표현물을 통해 직접 그 재현된

17) 관련 논의는 김현미, 『디지털 포르노그래피: 폭력과 욕망 사이』, 『인터넷과 아시아의 문화연구』, 연대출판부, 2007, 256~7쪽 참조.

남성을 억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팬픽은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오히려 그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듯 보인다. 팬픽을 읽고 쓰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동성(성)애 서사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금기로서의 동성애를 보다 이해 가능한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팬이라는 자각과 팬픽을 직접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 여성은 이야기 속 동성(성)애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를 금지하는 동성애혐오적 성규범을 비판적으로 보는 감수성을 획득한다. 이를 동성애 억압의 뒷면을 가진 남성 동성사회 전반을 향한 여성들의 게이한(gay; ‘동성애자’라는 뜻 이전에 ‘즐거운’, ‘쾌활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복수라고 읽을 수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이 글은 팬픽이라는 서사가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여성 주체의 변화와 연관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여성이 남성 동성(성)애를 서사로 생산, 소비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여성주체가 형성되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이다.

4. ‘똑바르지(straight)’ 않은, 팬픽의 서사적 효과

팬픽은 기본적으로 유명인을 매개로 한 욕망의 발현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성은 팬픽을 통해 남성 스타를 소유하려는 환상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당연히 여성적인 여자가 남자를 남성적 대상으로만 욕망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팬픽 속 남성 인물, 특히 수는 남성적이지만은 않고 공의 남성성 역시 사회적 남성성으로 기능하는데 바쳐지고 있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성에 금

기를 위반할 뿐 아니라 남성성조차 훼손하는 팬픽을 읽고 쓰는 여성은 과연 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별로 위치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팬픽에서 여성은 소거되어 있고 이는 전술한바 여성들의 시장, 혹은 인형조종술로 거칠게 일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팬픽을 구체적으로 읽고 쓰는 순간 경험하는 상이한 맥락은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져야한다.

여성의 동성애 선호에 대한 기존 논의는 보통 ‘환상성(fantasy)’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다. 원초적인 환상적 실천이 기본적으로 1인칭을 취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주체는 오히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위치를 수행하게 된다.¹⁸⁾ 그렇다면 팬픽 서사의 공수 구도에서 여성이 자연적 특질의 유사성으로 수쪽에 위치한다는 가정은 1인칭 시점에 대한 거부로 여성을 소거했던 애초의 의의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 스타의 가면을 쓰고 공 혹은 수의 입장에서 팬픽을 쓰고 또 읽는다. 그렇다면 이때 팬픽을 즐기는 여성 주체들은 각각의 순간에 어떠한 위치에서 누구에게 동일시되고, 혹은 누구를 대상화하게 되는 것일까. 팬픽을 읽고 쓰는 경험은 공과 수, 그리고 스타와 나 사이에 복잡하게 교차되는 수행성이라는 장 속에서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다.¹⁹⁾ 욕망의 무대화

18) 라벨랑쉬와 뽕딸리스는 『환상과 섹슈얼리티의 기원』에서 환상은 분명하고 변함없는 1인칭 시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시나리오에 의해 주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조안 리비에르는 『가면무대회로서의 여성성』에서 성적 정체성이란 남/녀 양성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서 파생된 전이와 역전이를 통해 끊임없이 미끄러져나가는 것이라 했다. 관련 논의는 임옥희, 『환상, 그 위반의 시학』, 『여/성이론』 2,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0, 82~86쪽 참조.

19) 김민정은 팬픽의 공/수 구분이 기존 이성애 구도에 불박혀 있으면서도 팬픽 작가들은 시뮬레이션 마스터로서 공의 남성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위의 글, 206쪽), 류정월은 팬픽의 서사가 수를 매개로 초점화될 때 여성이 수에 보통 이입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요염하고도 색정적인 정체성을 이상적인 것이라 내면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위의 글, 207쪽) 그러나 박세정은 그러한 남-남 커플링을 향유하는 즐거움은 행위 자체, 주체, 대상의 동시적 교차에 따라 좋아하는 캐릭터를

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다 다양한 각도로 보기 위해 팬픽이 팬덤과 맺는 관계를 다시 상기해보자. 여타의 동성애표현물과 달리 팬픽은 자신과 관련 맺는 스타 인물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대개 특정 팬픽에 대한 선호는 공수의 합당한 할당,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커플링 못지않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유무 및 그 역할에 크게 영향 받는다.

나와 스타 사이에 공과 수의 구분이 놓여있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음 4가지의 상황을 머리에 그릴 수 있다. 즉 ① 스타를 공에 놓고 나도 공에 두기, ② 스타를 공에 두고 나는 수에 두기, ③ 스타를 수에 놓고 내가 공이 되기, ④ 스타를 수에 놓고 나도 수에 두기이다. 이때 스타와 나의 관계에서 ①과 ④에서는 동일시, ②와 ③에서는 대상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성애적 측면에서 ①과 ③에서는 새디즘적 욕망이, ②와 ④에서는 매저키즘적 쾌락이 감지될 만하다.²⁰⁾ 그러나 이는 편의적 도식화를 위한 것이며 내가 동일시 혹은 대상화할 수 있는 스타가 한명이 아닌 두 명일 수 있고 또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은 팬픽 텍스트와 여성 주체가 맺는 관계를 더욱 다양하고도 모호하게 한다. 그러나 젠더 트러블적 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²¹⁾ 만일 여성이 공에 이입을 하고 수인 스타를 욕망하는 것과 공인

성적 대상인 수로 만들어 구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스스로 수에 이입해 쾌락을 느끼는 상황, 그리고 압도적 힘과 권력으로 수를 통제하는 공이 되어보는 욕망 등도 역시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위의 글, 55쪽)

20) 이러한 4유형은 강유람이 공/수 할당 속에 '담당(뎀뎀)'라는 구분을 두어 만든 표에 근거한다. 관련논의는 위의 글, 108~114쪽 참조.

21)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지목되는 주디스 버틀러의 출세작 제목이기도 한 '젠더 트러블'이라는 용어는, 기존 섹스에 젠더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젠더에 의해 섹스가 구축된다는, 그리하여 남/녀라는 구분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퀴어한 주체가 언제나 출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Routledge, 1999; 사라 살리,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역, 엘피, 2007 참조.

스타에 자신을 함께 엮고 수를 욕망하는 것은 이 남성 동성애 구도 속에서 여성이 남성으로서 동성애적으로 개입하는 것인가, 여성으로서 이성애적으로 이입되는 것인가. 질문은 끝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성성, 남성성의 고착점을 팬픽의 스타와 나, 그리고 공과 수의 교차장에서 명확히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팬픽의 서사로 촉발되는 복잡다단한 환상이 또 어떻게 현실과 엮여들어가는지를 보이기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상에 대한 욕망은 종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충동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런 점에서 다시 2000년 인터넷유해물 등급 논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팬픽이 가시화된 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팬픽이 동성애를 다룬다는 점보다 소위 기성세대를 더욱 경악시켰던 것은 팬픽이반이라 일컫는 존재였다. 팬픽이반은 말 그대로 팬픽을 읽으면서 자신을 이반(異般; 일반적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라 칭하는, 즉 남성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며 여성과의 스킨십을 서슴지 않는 일군의 여학생을 뜻한다. 남성 동성애를 즐기는 여성이 어떻게 스스로 동성애적 실천을 하게 되는지는 본질적으로 질문되지 못한 채 곧 무분별한 팬덤 문화 및 순수이반 논쟁 속에서 사라진 이 단어는 그러나 앞서 논한 팬픽의 서사적 효과를 강력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남성 동성애 선호적 실천으로 시작된 이 팬픽이라는 양식은 결국 여성들 스스로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재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간 급진적 문화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팬픽의 동일시와 대상화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크로스 젠더 현상에 대한 착목 없이는 팬픽이반을 비롯한 일련의 젠더 트러블적 현상은 그저 돌출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환상을 넘어 여전히 현실계에 간단없이 출몰하고 있다. 팬픽의 서사적 효과는 여성들의 '똑바르지(straight; queer라는 용어에 대응해 지배적 이성애 실천을 비판적

으로 지칭하는 의미' 앓은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학교라는 공교육 장에서는 팬픽으로 이반이 되는 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통신문이 남발되었다. 또한 동성애 커뮤니티에서는 순수이반 논쟁 과정에서 팬픽이 반포비아라는 조어까지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성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는 팬코스(fancos; 팬코스프레의 줄임말) 활동과 여성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한 팬픽까지 잇달아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존 남성 중심주의 이성애적 젠더 구조에 균열을 가하는 여성들의 수행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만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문화의 변태적 현상으로 부각된 팬픽이 사실은 사회적 변형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이는 자신을 구축하는데 보다 능한 존재로 살아온 여성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또한 대중(mass-)에 포섭되지 않고 하위(sub-)에 위치해온 여자들의 공간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물론 여기서 하위는 일부분으로 전체의 다양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이성애적 가부장사회 속에서 또 다른 여성이 기어이 존재했던 인프라(infra-)적 공간을 말함이다. 이 글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공간에서 마주친,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호모포비아와도 정정당당히 싸워나갈 것, 우리의 주된 활동무대가 밤의 음지이기는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4차원이 아니라 현실이니까”라는 호소에 대한 나름의 한 응답일 뿐이다.

그러나 이 글은 문화 현상의 하나인 팬픽이 왜 동성(성)애 서사의 구조를 취하며 또 이것은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형성과 어떻게 관련될지 논하는데서 멈추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서사가 어떠한 흐름으로 어떤 측면에서 각 주체에 기입되는지, 또 그 경험은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또한 단절적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낚을 넘어서는 일일 듯하다. 그 결의 올올은 차후 보다 엄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진량, 『팬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적 환상』, 『디지털 텍스트와 문화읽기』, 한양대 출판부, 2005.
- 김현미, 『디지털 포르노그래피: 폭력과 욕망 사이』, 『인터넷과 아시아의 문화 연구』, 연대출판부, 2007.
- 한채운 외,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4.
-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 『여자들의 시장』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2. 논문

- 김민정, 『사이버 여성 문화로서 팬픽 연구: 환타지와 성적체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3.
- 김민정,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적체성』, 『여/성이론』 1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3. 1.
- 김훈순·김민정, 『팬픽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본 소녀들의 성 환타지와 정치적 함의』,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4. 6.
- 류정월, 『팬픽의 기호학적 분석: 소녀들의 성적체성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8. 6.
- 박세정, 『성적 환상으로서의 야오이와 여성의 문화능력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6.
- 박수진,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여자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대 사회학 석사논문, 2004.
- 신영희, 『10대 여성 이반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대구지역 청소년 문화와 섹슈얼리티 구성에 관하여』, 계명대 여성학 석사논문, 2005.
- 안선주, 『인기남성댄스그룹의 팬픽 현상에 대한 연구: ‘g.o.d’와 ‘신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2003.
- 임옥희, 『환상, 그 위반의 시학』, 『여/성이론』 2,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0.
- 한유림, 『2·30대 여성의 아이돌 팬픽 문화를 통해 본 젠더 트러블』, 서울대 여성학 석사논문, 2008.

Abstract

Fanfics: The Women's space of Homosexual narratives

Ryu, Jin-hee

Fanfics are stories that women read and write about stars, and the most of them describe homosexual relationships. Fanfics have made and been enjoyed among the women and by themselves un- or anti-institutionally based on popularization of the super-high speed internet for 10 year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 of fanfics shows that women can possess their own informal market as the medium of men. It is the notable point that they also violate sexual morality and heterosexual love-central taboo imposed to women. The scenes of intensive sexual love composed of top/bottom structure using in fanfics are concretely contextualized as romantic narratives. At this time, women leave the context of male-dominated heterosexual love and accept homosexual love as an understandable thing. After all these women have queer subjectivity that doesn't accept the Phallic power prohibited thoroughly.

Key words : fanfic, fandom, novel, narrative, cyber, homoeroticism, sexuality, queer, gender troubl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